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4월 15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행19장 1-7절

설교제목 : “성령을 받았느냐”

교회력에서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오는 중요한 절기가 **성령강림절**입니다. 성령강림절은 부활절 이후 50일이 지난 후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행 2:1-4)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요16:13)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성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존재하는지도,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롬8:9)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주일에 예배를 참석했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아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볼로라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하나님을 깨닫고, 한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건너왔습니다. 그 때 바울이 윗 지방, 즉 23절에 기록된 갈리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두루 살펴본 이후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행19:1) 본문에서 ‘제자’로 번역된 ‘마데타스’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일반적 명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자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은 ‘너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느냐’ 혹은 ‘너희가 성령세례를 받았느냐’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볼 때에 그들 속에서 성령을 받은 흔적, 다시 말해서 성령의 내주하심 혹은 성령세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고 답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제자라고 불렸지만, 성령의 존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세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 계통에서 말하는 성령세례인데, 이들은 우선 회개와 믿음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성령세례를 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나 바울이 던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입니다. 오순절 계통에서는 ‘너희가 믿을 때에’의 ‘**믿다**’는 시제와 ‘성령을 받았느냐’의 ‘**받다**’의 시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세례를 받게 되는데, 성령 세례는 구원 이후에 받는 두 번째 축복으로, 능력이나 은사체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세례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본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에서 ‘**믿을 때에**’로 번역된 헬라어가 ‘**피스투스안데스**’인데 부정과거분사형입니다. 이 부정과거분사는 주동사의 동작과 동시적 동작을 가리키는 용법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에서 주동사가 ‘**받다**’에 해당하는 ‘**엘라베테**’인데, 결국 ‘**받다**’와 ‘**믿다**’가 동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는 사건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즉 성령세례는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세례가 구원 이후에 받는 두 번째 축복으로 능력이나 은사체험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참고 고전12:13) 성령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구원의 경험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이미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더불어**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오순절주의자들은 교회 지도자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세례의 주체는 전적으로 예수님이십니다.(행2:33) 오늘 본문의 사건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예외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음을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 지, 교회 지도자들의 안수에 의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세례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고 합니다. 5절은 성령세례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될 것은 교회에 등록하고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세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의 강조점은 세례식을 통해 성령세례가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가시적인 표징은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표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가 꼭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외적 표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적 표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령을 받은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는 확실한 표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고전 12:3) 그리고 둘째로,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았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행1:8) 그리고 셋째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갈 5:22-23)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내적 증거들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은 참 제자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어보기

- 1)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2)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